오도송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진각국사의 '佛覺華'

진각국사는 명종8년(1178) 전남 화순에서 태어났다. 속명은 최식(崔寔), 법명은 영을(永乙), 법휘는 혜심(慧諶), 법호는 무의자(無衣子), 시호가 진각(眞覺)이시다.

국사는 편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유년시절부터 불가에 출가하기를 원했으나 어머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국사는 항상 불경을 외웠으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24세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갔으나 오래지 않아 모친의 병보(病報)를 받고 귀향하게 된다. 1년여 동안 병간호 끝에 모친이 세상을 뜨자 국사는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바로 출가하게 된다. 그때 보조국사는 조계산에 수선사를 열어 그 도화(道化)가 한창이었고, 국사는 보조국사를 찾아가 불문에 귀의할 뜻을 밝혔다. 이렇게 출가를 한 국사는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한편, 피나는 고행을 하였다. 수참했던 곳은 지리산 금대암이었다. 3년간의 용맹정진은 글자 그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행이었다. 3년간의 고행정진을 마치고 억보산 백운암(白雲庵)에 머물고 있는 스승을 찾았다. 보조국사는 "그동안 수행은 어떠했는고. 불법은 무엇이고, 우주는 무엇인가." 이에 국사는 돈오(頓悟)하여, 화엄선(華嚴禪)의 대각(大覺)을 이루었다.

불각화(佛覺華 : 부처님의 꽃)

普光明殿是吾家(보광명전시오가)
三法一源初睡起(삼법일원초수기)
百十由旬一念收(백십유순일념수)
世間時刹都爲爾(세간시겁도위이)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곳(보광명전)은 그대로 나의 집이요,
삼법(敎法 · 行法 · 證法)의 한 근원에 첫잠이 깨다.
멀고도 너무 멀어서 생각하기 힘든 거리 한 생각에 거둬들이니,
세간의 시간이야 모두 헛된 것이구나.

이에 보조국사는 "내 이미 너를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다"고 말씀하였다.

수선사 2세로 선종의 주춧돌을 놓아다가 천 칸집을 짓게끔 국사에게 인가를 한 것이다. 보조의 수행은 회광반조(廻光反照:진여자성인 인간 본래의 모습을 깨달아 진심(眞心)을 통한 불성을 말함), 돈오점수(頓悟漸修:홀연히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이루되 이를 부동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수행정진을 하여야 된다는 뜻), 정혜쌍수(定慧雙修 : 적연부동(寂然不動)의 마음과 초월적 관조의 지혜를 일체화하여 무심의 경지에 이름을 말함), 간화경절(看話徑截 : 일체의 지혜를 떨쳐 버리고 오로지 조사들의 활구를 참구함으로서 무심합도(無心合道)의 깨침을 말함)이다.

오도송에서 볼 수 있듯이, 국사는 스승보다 좀더 실천적인 간화 중심의 수행을 견지하고 있다. 스승이 수행에 있어 병진수행주의(竝進修行主義), 심외무법 성외무법(心外無法 性外無法)을 말했다면, 국사는 색신(色身)으로 나를 보는 것도 사도(邪道)요, 보리와 열반이 원래 청정하다 하여 실천수행이 없는 것도 사도라고 말했다. 또한 국사는 화두 참구에 있어 사구(死句)에 들지 말고 활구(活句)의 본바탕에 들라고 강조했다. 한편 스승은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으로 돈오후(頓悟後)의 정혜쌍수를 말하는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을 선(禪)에 흡수, 교(敎)에 의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으며, 이와 함께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일체의 앎음을 끊고 활구만을 참구하는 간화경절문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국사는 간화경절문만을 강조하였다. 언설이나 경전에 의한 수행보다는 간화에 의한 참선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정혜쌍수까지도 간화에 포함시켰다. 또한 논리적 과정을 차단한 직관에 의한 돈오를 강조한 것이다. 즉 일심수행주의의 강조이다. 일체의 집착을 놓아 버리고 심즉불(心卽佛)의 경지에 들 것을 무심(無心)을 통하여 말하고 있다. 국사는 수행에 있어 선관(禪觀)은 자독청정(自獨淸淨)의 나한적 존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망상을 여읜 무심(無心)이 곧 심이며 무심이 자기 실존의 주체임을 강조 관념보다는 직관(直觀)을 통하여 내적 자아발현이 깨침이라고 하였다.

활구 참구 '간화경절문' 주창

"직관통한 자아발현이 깨침"

가까이서 뵌 큰스님

원명스님

대구 관음사 조실

"집착 놓아버리면 절로 행복"

대구 관음사에 주석하고 계신 원명(元明)스님을 친견하러 가는 길은 세찬 장마비가 그친 터라 산하에 푸르름이 선명했다.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위치한 관음사는 도심사찰이다. 원래 송광사 대구 불일회 회원 3~4명이 관리하던 관음사는 68년 원명스님이 도심포교를 발원하면서 현재는 대구시 포교거점 사찰로 성장했다.

관음사에 들어서자 첫눈에 들어오는 아람드리 나무는 마치 스님의 지역포교 원력을 보여주는 듯 힘차고 듬직했다. 흐지 한 조각 보이지 않는 사찰경내도 깔끔하고 엄격하신 스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는 듯하다. 68년부터 관음사에 주석하시며, 매일 오전시간을 기도수행으로 살아온 탓일까.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더운 한여름에도 간절한 염원으로 관음사 법당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맺혀있다.

스님을 친견하고 먼저 기자가 고교시절 순천 송광사에서 친견했던 구산 큰스님(九山, 전 송광사 방장) 얘기를 꺼내자 원명스님은 손을 내저으셨다. 스님은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하다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이르셨다.

스님은 "기도나 참선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심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복잡한 생각을 쉬게 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쉬어야 부처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기라. 수행정진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 할수 있지요."

부처님 조사님 말씀이 모두 같고, 다양한 수행법과 기도법도 결국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한 방편이라고 강조한 스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공부하면 저절로 좋은 마음 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스님 말씀의 요지였다.

"부처님의 법을 배워 깨달음의 바탕위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면 깨닫는다는 말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법이 인도에서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왔는데 그 법에는 당당하고 조금도 굴할 것이 없어요. 내 마음의 깨끗함 그것이 진리의 고향이라. 그 묘한 자체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산하가 모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인 기라. 알겠어요."

스님은 지역감정, 집착, 아집과 상을 버리고 부처님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서로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사회와 민족의 발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 때 그 것이 부처님 진리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라는 것이다.

◇원명스님은 16년전부터 지역화합을 강조하며 광주불교사암연합회와의 지속적인 화합법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6월8일 산청 겁외사에서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우측), 광주 무각사 광민스님의 인사를 받고있는 원명스님.(가운데)

"기도하고 참선하고 마음속 꿈틀대는 탐진치 쉬게해요"

스님은 며칠 전 종단에서 해인사 문제와 관련한 서류를 보내왔다며 서로 싸우지만 말고 참회하고 상의해서 일을 원만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말씀했다.

병술년(1946년) 가을 가야산 해인사가 가야총림이 되면서 초대방장으로 추대된 효봉스님을 해인사에서 5년간 시봉했다는 스님은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모셔진 한국의 대표사찰입니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뭐라 하긴 그렇지만 상의가 안되면 모든 일이 시끄러워 져요. 가야산은 배가 떠나는 형상이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가야산에 큰 짐을 실으면 안된다고 그랬어요. 서로 양보하고 상의해서 불사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라고 말했다.

폭력을 휘두른 해인사 수좌나 실상사 스님들이 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덧붙인 스님은 모든 잘못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만큼 마음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은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 집착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지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 보아도 매 한가지입니다. 놓아버리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스님은 요즘 스님들이 청빈과 검약이 부족하다며 옛날 얘기 한 토막을 들려주셨다.

"옛날 범어사에 욕심 많은 명학스님이 계셨어요. 스님은 가진 것이 많아 인근 마을 사람들이 외출을 하면 그 스님 땅을 세 번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상좌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날 상좌가 스님에게 이르길 '스님 절 뒷산으로 등산이나 갑시다' 하는기라. 상좌가 등산을 가자고 하니 '그래 좋다' 하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니 벼랑에 구멍 세 개가 있어요. 상좌가 스님에게 말하길 '스님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인줄 아십니까?' 상좌가 다시 이르길 '이 구멍 중 하나는 스님이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스님 공부하려고 절에 들어와서 공부도 못하고 욕심만 부리다가 뱀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명학스님이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는 공부를 하자' 하면서 다음날 스님이 상좌와 길을 떠나는데 통도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잠시 쉬게 됐어요. 그런데 스님이 상좌에게 말하길 '하나 정리 못하고 온 것이 있다. 금방 가서 정리하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려라' 하는 것 이예요. 그래 상좌가 기다리는데 해가 넘어가도 스님은 오지 않았어요.

상좌는 혼자 길을 떠나 금강산으로 들어가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 스님이 영원스님이었어요. 어느 날 영원스님이 금강산 토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범어사 명학동지'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그 놈 욕심이 많았으니 누런 보자기 씌워라' 하는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火(불)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산후병
■ 성욕감퇴, 유정, 정자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정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완전해방'

계단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갈슘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기타 자연에서 추출된 미생물을 복합 이온화하여 인체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원리로 이루어진 '상어연골정'은 닮아 없어지는 물렁뼈가 생성되고 골이 빈 곳에 인이 채워져 골다공증을 잡아주며 몸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샤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회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은 국내 삼일양행(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 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코랄샤크골드〉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미생물 이온화 '코랄샤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만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IMF다이어트 인기급등

비만인들의 희소식. 최근 삼일양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인하하였고 또한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킨 것이 바로 IMF 다이어트이다.

이 다이어트의 특징은 한방에서 추출된 특수성분이 함유되어 부작용없이 자연스럽게 몸에 흡수된다는 것. 현대인들의 운동부족과 영양섭취로 인하여 누적되는 지방분과 기존의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몸에 무리가 가지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비만 등 많은 분들로부터 희망을 주는 다이어트로 거듭태어났다고 한다. 비만인들의 희소식은 틀림없으며 한방성분의 10여가지 조화가 균형을 잡는 비법이라고 한다. 삼일양행측은 IMF 졸업할 때까지 현재가격을 고수하겠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IMF다이어트 1개월분 88,000원
■문의 :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3천3백3십3배

(제 6회 철야 특별 기도 정진)

상근기도 못되면서 신심도 없으면서 자력수행 하는 것은
험난한 망망대해를 헤엄치며 건너려는 어리석은 짓과 같으니
3333배 금강의 배를 타고
9999회 감사의 노를 저어
제 7 말라야식인 에고의 업장을 깨버리고 행복으로 기쁨으로 환희심으로 가득한 대자유 부처님 참마음으로 가봅시다.

<절을 氣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이며 절을 500만배 성만한 청견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축비소리에 맞춰 일괄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 저녁 7시~9시까지 2시간동안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을 2시간만 배우면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108배하는 기본으로 가볍게 3333배 정진에 도전하십시오. 7~80세 노인도 어린이도 끝까지 정진한 불자가 많으며 설악산 봉정암을 하루 한번에 갔다올 수 있는 힘이 누구나 생깁니다.
※ 가슴이 열리고 단전히 뚫리고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신비로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일 시 2001. 7. 28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7시
■준비물 공양미, 기도포, 세면도구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금강지혜보궁 불사도량 법왕정사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문의전화 031)771-7745 · 6736 (Fax겸용)
⊙ 서울 상봉터미널 ➔ 모곡행 ➔ 모곡종점 하차 전화 요
수행전문사이트 http://cafe.daum.net/sorisan/

木목 酢초 수액원기 시트

체내에 독소 배출 몸안에 독소는 만병에 근원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목, 어깨결림, 허리, 무릎통증, 교통사고 후유증, 장기간 약물 복용 하시거나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시리고 쑤시는 분, 산후조리 및 자고 나면 손발이 붓는 분

◇증 통
마비기 온 손발의 부기가 빠집니다. 굳어진 근육이 풀리며, 걸을때 당기거나 통증이 오는 어깨, 허리, 등, 허벅지, 무릎등의 불쾌감이 없어져 몸이 기뻐합니다.

독소배출 자기눈으로 확인!!

삼보기업
02)2279-2715
011)397-2715